



2024년 (사)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 개최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
제32대 이사장단 취임식



사부산미술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제31대, 제32대 이사장 취임식도 열렸다.

지난 1월 25일 (사)부산미술협회 (사)한국미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제91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회원 2,148명 중 600여 명이 참석해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정기총회는 식순에 따라 제1부 △감사패 수여식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장예작가상 전달 △오늘의 작가상 결과보고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심사결과 보고 및 시상 △2024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제2부 본회에서는 성원 보고와 총회 의장의 개회 선언 후, 경과보고로 △2023년 업무 보고 △2023년 경상비 수지결산 보고 △2023년 사업 결과 및 수지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안건으로는 ▲의안1) 2024년 (사)부산미술협회 사업계획(안) ▲의안2) 2024년 경상비 예산(안) ▲의안3) 서면 건물 임대료 지분 조정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어 제3부에서는 제31대, 제32대 이사장단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제1부, 2024 공로상에는 선행의

료재단 박종호 이사장, 평홍건설(주) 김규화 대표이사가 선정되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장예작가상에 선정된 서양화분과 안태준 작가의 상패 전달식이 거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최근 3년간의 왕성한 작품 활동과 작업성과를 바탕으로 본 협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이 이어져 가족들과 많은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에는 판화분과 홍익종 작가가, 청년작가상은 조지분과 이창을 작가가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24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양화 부문 김

승경, 서윤하 ▷수채화 부문 홍수연 ▷서예 부문 김진일, 김민호, 류기훈, 박영찬, 설경희, 신현정, 이명순, 이상길, 이창자, 주옥순, 최영자 ▷문인화 부문 권태복, 김국숙, 문인수, 성장숙, 이점화, 윤종숙 작가에게 인정서를 수여해 기쁨을 나눴다.

제2부 본회 안건의 사업계획안 승안에 따라, (사)부산미술협회는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부산미술제', 'BFAA아트페어', '청소년 미술캠프', '송혜수 미술상', '오늘의 작가상', '해외자매도시교류전', '부산사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소식지 발간, 전시 공간 운영, 입주 작가 창작 공간 운영 등 협회 회원과 부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 후 이어진 제3부 제31대, 제32대 이사장단의 이취임식에는 박수영 남구 국회의원 김재호 보좌관, 남구 갑 조상진 시의원, (사)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이병국, (사)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연합회 조은희 회장(경기미술협회 이사장), (사)한국미술협회 서양화동합 부이사장 황제성,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박형모, 코리아 아트에스타 포럼 허필호 이사장,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이상호 학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31대 박태원 이사장은 "오늘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부산미술협회 제31대 집행부는 지난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선임 이사장에게 부산미술협회기를 전달하며 부산미술협회 제31대 집행부 임기 4년의 마지막을 고했다.

앞으로 4년간 부산미술협회의 운영을 책임질 제32대 최장락 이사장은 "올해로 창립 78주년을 맞은 부산미술협회는 부산 미술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최대 미술 단체로서 회원님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에는 ▷부산미술협회 사대직 혁신 방안 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부산미술협회 회원 위상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부산미술협회 사업추진 ▷부산 미술의 미래 사업 협력추진 및 대외 홍보 ▷부산시 및 교육청과 공식 협의하여 미술 문화 강화 실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회원 인명사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북항 제1부두 창고에 대형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이어갈 것이다.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많은 회원의 기대 속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24년 부산미술협회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부산미술협회 2024 제32대 첫 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23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23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63명의 임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2대 선임 최장락 이사장이 임원 당선증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91차 정기총회내용 △2024년 주요행사 개최 일정 △2023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전시일정보고 △제32대 서예분과 이사 추가임명 보고가 있었다.

이사회는 이어 ▲안건1) 제20회 송혜수 미술상 운영계획(안)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운영계획(안) ▲2024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전 운영계획(안) ▲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운영계획(안) ▲제33회 부산사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운영계획(안) ▲제50

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사업계획(안) ▲2024 제13회 BFAA아트페어 사업계획(안) ▲제44회 부산미술제 사업계획(안) ▲전과·탈퇴·복권 인준 건 등이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제32대 부산미술협회 중점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 집행부는 PPT를 통해 첫 번째 사업 과제인 사대직 혁신방안 정립을 위한 시스템구축의 시작인 부산미술 80주년 추진을 위한 특별사업단구축, 부산미술협회 회원 인명사전 아카이빙 사업, 부산미술인의 날 제정 및 부산미술제, 부산미술 아트페어 등 재정립 협의 실행, 두 번째 부산미술협회 회원 위상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 세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부산미술 사업 추진, 네 번째 부산미술의 대외 홍보 및 미래사업, 다섯 번째 미술문화 강화 실행을 위한 부산시 및 교육청과 협력 등에 대한 설명과 시급한 부산미술협회 대형전시공간 확보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은 나눴다.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 4인 초대전



송혜수미술상 수상자 4인이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역대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 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가들의 초대전이 열렸다.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송혜수 미술상을 수상하며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정광화, 김남진, 신홍직, 강동석 작가 등 4인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보는 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특한 표현기법을 구사하며 작품 활동과 함께 선후배가 더불어 발전하는 미술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정광화 작가와 나무관을 캔버스에 붙여 드릴로 형태를 파낸 뒤 채색을 하는 새로운 회화기법을 탄생시킨 김남진 작가, 힘차고 빠른 손의 움직임으로 작가의 호흡을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내고 있는 신홍직 작가, 판화와 서양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재료 사용과 표현 기법을 구사하며 부산 판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석 작가가 참여했다.

이 전시는 긴 시간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쳐 온 4인 모두의 작품을 한자라에서 감상하는 흔치않은 기회가 됐다.

기획연재 1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하여

(동 시 대 미 술)

그 다양한 현상 형태와 전망

컨템포러리 아트 또는 동시대미술을 말할 때 그것은 '지금 현재에 생산되고 있는 미술이 아니라, 미술사적 맥락에서 포착되는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21세기 미술을 미술사적 맥락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로 칭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테리 스미스나 안토니오 네그리의 지적처럼 1980년대에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확연히 구분되는 양식적 현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를 특징짓는 양식이라고 포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컨템포러리 아트의 내용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미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컨템포러리 아트는 한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시대를 차이, 다수성, 우연성의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할 것이며, 양식상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는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포스트구조주의가 거부하는 보편적 진리를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사상가는 자크 랑시에르, 조르조 아감벤, 알랭 바디우,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컨템포러리 아트'는 네그리의 말처럼 현재의 세계화된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것에 대한 저항의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로 다양하게 발현하는 21세기의 미술, 나아가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를 일목요연하게 범주화시키려는 시도는 '정교한 일반화의 오류' 및 '강조의 오류'를 범할 위



Jeff Koons, 성심(Sacred Heart), 1994-2007, 3.7m, Violet-Gold 버전. 신세계백화점 본점 트리니티 가든. 높이 3.7m, 무게 1.7t, 300억원. 백화점 정원에 놓인 공공미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이어진 축하(Celebration) 시리즈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나타낸다. 또한 작품이 놓인 공간은 종교적 성심이 드러나는 트리니티(삼위일체) 정원이다. 그런데 이 정원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백화점 본점이다. /SSG BLOG, 신세계그룹 공식블로그.

험성이 아주 크다. 아울러 이를 위해 거론되는 작가도 언급되어야 할 많은 작가 가운데 극히 일부이며 그 때문에 의미 있게 언급되어야 할 중요하고 훌륭한 수많은 작가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비추는 눈' 미술사적 맥락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의 경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포착해볼 수 있다.

그 첫째 경향은 유럽과 북미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더니스트적 계몽주의의 재확인, 또는 모더니즘의 복원이다. 이 경향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하나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하는 자본, 신보수주의적 정치의 헤게모니 구조에서 작동하는 광범위한 비엔날레 시스템들 들 수 있다. 이 흐름에는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퇴행적 선정주의(retrosensationalism)'의 작가를 포함시

킬 수 있다. 이들은 예술과 실생활을 통합한다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전략을 되풀이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 자본, 그리고 신보수주의 정치의 단물과 부작용을 가까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방가르드의 정치적 유토피아주의와 이론적 급진주의는 사라지고 없다.

이 첫째 경향의 또 다른 흐름에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제프 월, 리차드 세라의 리모더니즘(remodernism)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목표로 삼던 모더니스트적 기획을 다시 취하면서 현행 자본주의 사회 및 예술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꾀한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기법과 형식의 실험을 통해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과거의 모더니즘의 기획과 의도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쇄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지적할 수 있다. (Terry Smith, What is Contemporary Art, 2009, 김경운 옮김,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마로니에북스, 2013, 21, 402-403쪽 참조)

한편 니콜라 부리오가 찬양하는 관계미술과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및 래디컨트(radical) 미술에 바탕을 둔 그의 알터모더니즘(altermodernism)도 모더니즘의 복원, 새로운 모더니즘을 주장하고 있다. 부리오의 알터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기획을 다시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더니즘인지,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연성과 우발성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는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여기서는 접어두기로 한다.

컨템포러리 아트의 두 번째 경향은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화 이후 지역적, 국가적, 반식민적, 독립적, 반세계화적 가치를 통해 형성된 미술이다. 1990년대 동유럽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전 세계가 지적, 정치적으로 뒤섞이면서도 여전히 유럽 중심의 대형 전시가 미술

계를 주도할 때 오쿠이 엔위저는 제 2회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에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의 큐레이터와 함께 이른바 제3세계의 사회, 정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는 전시를 기획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2002 카셀 도큐멘타, 2008 광주비엔날레, 2015 베니스비엔날레까지 이어졌다. 그는 비엔날레를 통해 비서구권 미술을 서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미술로 호명하면서 미술의 탈식민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엔위저가 시도한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의 민주주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와 국제주의의 가치가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작업은 '천진 경제'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스펙타클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는데 자극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에는 탈식민주의 미술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공공참여의 미술(여러 형식의 공공미술, 장소특정적 미술, 커뮤니티아트 등), 생태학적 가치 안에서 환경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미술(환경미술, 생태미술 등), 전자통신미디어의 발전으로 나타난 개념적, 사회적, 물질적 구조를 검토하는 미술 경향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넷아트, net.art, 몰입환경, 아바타-부제의 상호작용성 탐구, 칠도 메아리레스, 장 미셸 브뤼에르, 시린 네사트, 아이작 줄리언, 조르조 아테아보, 윌리엄 켄트리지 등의 작가는 스펙타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작업을 한다. 같은 책, 22, 403-405쪽 참조)

컨템포러리 아트의 세 번째 경향은 앞의 두 경향의 전개로 인해 일어난 세대 변화의 산물이다. 이 경향의 미술은 미술 제도에 대한 도발이나 거대 담론을 거부하면서 수줍고 미세하며 특정한 제안을 선호한다. 이 경향은 앞의 두 경향에 나타난 요소들을 뒤섞으면서 그 쇄퇴하는 역학관계나 투쟁하는 양식들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적이고 개별적인 주제를 통해 동시

대적 삶의 보편성을 획득한다(예컨대 yBa의 여러 작가들). 이들은 각종 매체(媒材), 가상통신 네트워크, 또 촉각적인 연결성의 열린 양태들로부터 비롯되는 쌍방향적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이 작가들은 소집단이나 느슨한 연대 속에서 집단적으로 작업하거나 개별적으로 작업하면서, 즉각적인 것을 포착하려 하며, 현재 시간, 장소, 매체, 분위기, 변화하는 속성을 움켜잡으려 한다. 그들은 세상의 굴곡과 삶의 마찰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존, 협력, 성장의 흐름을 구하려 한다. (같은 책, 23, 405-406쪽 참조)

이 글에서는 먼저 미술사적 맥락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를 개발해보았지만, 21세기에 발현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미술'들은 주제, 재료, 수단, 창작 방법, 탐구 영역 등에서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그 주제의 측면에서 파악해보는다면 관계 미학과 관계 미술, 기호학,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생명 예술, 사회학, 정신분석학, 수용이론, 페미니즘 및 융시의 개념, 탈식민주의 및 민족주의, (반)세계화, 디아스포라, 그리고 공공미술 및 커뮤니티아트 등을 포함하는 이론과 방법들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극히 개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작가들도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필자는 짧은 지면에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를 짧게 개발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해보았다. 이러한 시도에서는 언급했다시피 필자의 임의적 선택, 강조 등에서 나타날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쓸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또한 이번 글에서 21세기 한국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따로 분석하여 파악하는 수고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더욱 복잡한 많은 논의를 수반하며, 따라서 이 짧은 지면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김종기
미술비평가·철학박사(미학/사회철학)

사)부산미술협회 제6차 이사회 열려



사)부산미술협회 2023년도 제6차 이사회가 2024년 1월 5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 사항으로는 △2024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결과 △2024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 결과 △제43회 부산미술제 결과 △제12회 아트페어 결과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 & 부산미술대작전 결과 △제32대 임원 선출 결과 △서울 인사동 부산갤러리 계약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안건1 경상비 결산 보고 및 사업비 결과 보고 건 ▲안건2 제32대 임원 선거 관련 예산안 및 결산 보고 건 ▲안건3 제32대 선거 관련 회계감사 및 본 협회 감사 보고 건 ▲안건4 서면 건물 임대료 지분 조정 건 ▲안건5 탈퇴회원 심의 건 ▲안건6 2024년 직원 급여 조정 건 ▲안건7 2024년 정기총회 개최 건 ▲안건8 제32대 특별사업단 구성의 내용 협의의 건(부산미술 80주년 추진단, 미래 사업 협력 추진단) ▲안건9 제32대 각종 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용두산 미술거리',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선정

사)부산미술협회는 지역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창작 공간 '용두산 미술거리'와 '부평아트스페이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1차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주작가를 선정했다. 용두산 미술거리의 박지연(공예), 안수진(한국화), 윤연정(한국화), 아규엘(디자인), 이수아(공예, 디자인), 정소영(공예) 작가가, 부평아트스페이스는 배하람(서양화), 손효진(서양화), 송상현(주얼리 디자인), 이승훈(시각 디자인) 작가가 최종 선정돼,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미술협회는 청년 작가들의 뛰어난 기량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 지원해 왔다. 부산 원도심 지역의 중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용두산 미술거리'와 '부평아트스페이스'는 작품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입주작가 간 네트워크 형성, 아트상품 개발, 작가 개인의 작업 발전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작업을 22 추천한다

대담/글 : 김성현 (미술평론본과 회장)

영상·설치 김지오

서양화 작업을 하다가 영상·설치로 그 영역을 확장해 전위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는 김지오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김지오 작가는 문자 혹은 사물의 상징적인 로고 타입을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듬은 형태소라는 개념과 이미지를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독특한 분야인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기계적 메커니즘을 활용·결합한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작가인데, 작가는 곧 다가올 개인전(3월7일~4월20일)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준비된 다과를 들면서 가벼운 덕담을 나누다가 대담을 시작하였다.

Q : 카네틱 아트의 창시자인 스위스 탕젤리 미술관을 갔었는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조형성을 담아내는 작가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여겨지더라. 김지오 작가의 경우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라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Nagy)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는데, 김 작가도 토털아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만일, 다빈치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예술 장르를 할 것 같나?

A : (필자의 느닷없는 다빈치 언급에 쑥스러워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건 올라운드 플레이어인데, 음악과 공학 그 외의 다른 영역도 관심이 많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빈치하고 약간의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다빈치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DJ를 하고 있지 않겠나. (웃음)

Q : 김지오라는 작가를 떠올릴 때마다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미끄러져듯이 어디로 쫓지 모르겠다. 부산에서 김지오 작가는 특이점을 가진, 어쩌면 지역에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세계성을 가질 수 있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3월에 시작하는 개인전이 기대되는데 주제는 무엇인가?

A : 타이틀은 <감각 성형>, 또는 <들어는 봤나? 감각 성형> 이렇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후자는 너

토털아트를 추구하는, 이 시대 부산 미술계의 파이오니아! (Total-Art) (Pioneer)



김지오 작가(오른쪽)가 작업실에서 편집위원들과 함께 대담하는 모습.

무 좀 까부는 것 같아 좀 고민하고 있다. 감각 성형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은 2019년부터다. 요즘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주도하는 기계 로봇을 인간에게도 적용시킨다는 역발상을 작업에 도입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인간의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를 작업에 응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시작된 분야인데, 그동안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다가 작년 2023년 5월에 FDA 승인이 난 분야다. 나도 칩을 심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나의 작업은 아픈 사람의 재활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고, 상상안들도 인간의 기본 감각인 오감을 조금 더 증감시켜, 예술적인 성취도를 높여주는 과정을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작업에서 먼저 내놓는 것은 리듬감 성형이다. 내가 취미로 드럼을 시작하다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나는 악보를 잘 모른다. 악보를 모르니 음을 듣고 그냥 치는 것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드러머와 유명 가수들도 악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더라.

내가 악보를 못 보니까 소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지휘자랑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하고 호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감으로 당시의 눈치와 그동안 축적되었던 리듬감으로 드럼을 치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런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니, 미래에는 나의 악보 난독증도 리듬감 성형 같은 사술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뇌에 칩이 들어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전송을 받는다면, 어떤 곡의 리듬 드럼 파트 데이터를 주입하게 된다면, 악보를 못 봐도 바로 치게 되는 이런 게 리듬 감각성형이라고 떠올린 것이다.

Q : 2014년도에 필자가 기획했던 김 작가의 오션스 특별 초대전을 떠올려 보자. 탁 트인 공간을 메꾸었던 대규모 전사였는데, 다양한 실험을 펼친 <지각변동(知覺變動)>이라는 주제의 전시였었다고 기억된다. 그 이후 새로 시도한 작품들 중 드로잉 머신을 활용한 작업들이 보이는데 어떤 개념과 내용인가?

A : 2018년도에 드로잉 머신을 활용해서 전사를 했었다. 드로잉 머신을 가지고 형태소 같은 로고 타입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표현할까 고민하던 중, 2014년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난 2016년에 배가 안양되는 것을 보았다. 그 사건이 자주 기억에 남았다. 2018년에 드로잉 머신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내가 사건을 기억하고 이미지로 그리는 것은 재현이지 않나. 침몰했다가 안양이 되면 그 사건은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다.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한 번 더 침몰될 때의 당시 상황을 그냥 드로잉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단순한 이미지 말고 큰 뿔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리를 하나 잡아넣었다.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수중 탐지음 소리가 뱅뱅 뱅 뱅 나는 소나(Sonar) 탐지음을 넣었다. 앞에 어떤 물체가 있나 없나 지형이 있나 없나 탐지하는, 아마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도 분명히 다 찾으려고 했을 테니, 그때의 상황을 공감각적으로 재현시켜보자. 그래서 드로잉 머신으로 그리면서 소리도 뱅뱅 뱅 뱅 나게 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분들의 영혼이 소나에 탐지돼 나는 소리가 되고 하다. 그렇게 저기에서 아쪽으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상징성을 확장에서 보여준 작품이다.



자신의 고통을 체화(incarnation)시킨, 형태소(形態素) 이미지

Q : 이제 가상현실이 AR, VR, XR에서 MR로 확장된 시대다. 애플에서 400만 원 대의 비전 프로를 만들고, 마크 주커버그도 80만 원 대의 제품을 만들어 공간컴퓨팅이 실용화 되는 단계다. 김 작가도 영상설치 분야가 가진 특성상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A : 고민을 많이 한다. 기술은 날이 다르게 발전해가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만 예술가는 사실 못 따라간다. 그런데 신기술이 나왔다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신기술이 나오면 다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간적/물리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더라. MR 기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써먹을지 고민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또 요즘은 드는 생각은 작가가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시대에 맞춰 배워서 적용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최신 기술만 써 가지고 다뤄서 작품 보여줘야만 작가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요새는 좀 느긋하게 어찌 되는가 한 번 더 두고 보고, 자연스럽게 내가 배우게 되면 적용하려고 한다. 이전에는 3D도 나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거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조금씩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제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지만 그걸 다 섭렵할 수는 없고 필요한 거만 쫓아볼 줄 알아놓고 활용하고 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초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기술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다.

Q :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정의 내린 '사니파양' 밑에서 '사니파'에 는 무한히 미끄러진다는 말이 있

다. 작가의 형태소 작업들을 보면 이 개념이 연상된다. 그리고 김 작가는 새로운 형태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작가 자체가 이미 창조자의 위치로 올라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작가의 이미지 중 '콩'을 예로 들어보자. 이 단어는 형태로서의 기호인 혼란정음의 'ㄱ' + 'ㅇ'을 조합한 거다. 기존의 혼란정음 키움 등을 그대로 차용한 기성의 조합인데 대단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가?

A : 내가 작품에 쓰는 글자는 원래 만들어져 있던 언어를, 나의 형태소의 세계관으로 편입시켰다고 생각한다. '콩'이면 베이스 드럼 사운드인데, 사람마다 다른 소리 혹은 다른 크기로 배합할 수 있다. 사운드에 대응하는 글자를 내 마음대로 관계짓고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형태소 세계관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충분히 의미있고 재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전시는 <형태소론: 形態素論>이 주제다. 내가 다루는 형태소의 분류 계보화를 이미지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 구분 안에는 한글 형태소, 소리값 형태소도 들어 있었는데, 나의 형태소 외연을 자주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콩이라는 단어도 한글로 쓸 수 있지만 빨간색 원으로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다....

p.s : 새로운 분야는 외롭고 고독하며 위험이 감지된다. 그러기에 계획지는 각고의 노력과 다니엘의 담대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독창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김지오 작가는, 예술계에 +α를 만들어나가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시대를 앞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 그들처럼 기억되는 새로운 개척자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와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면 관계상 많은 부분 생략함을 해망 바라며 거친 글을 마친다.



이냐 가수의 자연어 해킹, 2023.

시간의 흔적을 그리다

추상 수채화의 진수 선보여
순수하고 담백한 색의 조화로
세월의 흔적 그려 내



종이에 남겨진 맑고 투명 한 물 자욱과 말없이 스며들고 번져나간 물감 사이로 비치는 빛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 물빛 가득 머금은 작품들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듯 작각에 빠져들게 하고 촉감과 울림, 냄새까지 느껴진다.

지난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수채화의 대표 주자인 조규철 화백의 초대 개인전이 갤러리 콩에서 열려 추상 위주의 수채화 작품들과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명제 표를 생략해 관람자의 개별적이며 자유로운 감상을 유도했다.

수채화는 작가의 모든 작업 과정이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 조규철 화백은 특유의 순수하고 담백한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굳어지기 없는 간결함은 그의 성정을 짐작하게 한다.

조 화백의 작품 중 꽃이나 자연 풍광을 그린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긴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어 세 부 형상이 사라진 바위 언덕의 마애불상에서 큰 감동을 받고 단순화된 형태 색들을 작품

의 모티브로 삼게 된다. 이후 사람들의 시선에서 외면 받아온 뿔갈목의 낡은 벽과 허름한 술집의 천장과 벽 사이로 스며들어 간 빗물 얼룩,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바닥의 흔적은 그에게 아



心像 41x55cm, watercolor on paper.

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조규철 화백은 이를 계기로 형태가 해체된 추상 작품들을 위주로 작업하며 하나의 사진처럼 표현하기 위해 커피, 감물, 먹, 염색액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시간의 흔적이라는 테마를 이어간다.

특히, 26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난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의 수채화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수채화 작업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행법인 선(禪)의 본성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세월의 흔적에서 시간이 만든 얼룩진 자취를 그리고 싶다”고 말하는 조규철 화백의 자유롭고 순수한 작품세계는 우리를 무아정적(無我靜寂)의 길로 안내한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색과 깊이에 주목하다

제9회 송대호展
역사적 유물, 민속 소품들로
우리 민족의 섬세한 감성 담아



풍경, 꽃 등 자연의 조형적 요소와 색의 변화를 화폭에 담아 온 송대호 화백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 라합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부터 8호까지 다양한 크기의 유화 작품 총 35점을 전시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역사적 유물을 중심으로 풍경, 꽃 등의 구상적 형태에 추상성이 가미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송 화백만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물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강한 대비의 색감 배열과 화면을 두텁게 쌓아 올리는 기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화면의 깊이를 더했다.

작품 <축일(祝日)>을 보면, 전통 혼례에서 사용되는 여러 소품이 등장한다. 전통 함 위에 보자기에 싸인 기러기 목조각과 반질고리 함이 놓여있고 그 주위를 나비들이 흐드러진 꽃잎처럼 날고 있다. 뒤로는 어머니의 손으로 한 뼘씩 조각을 이어 붙인 아여쁜 조각보가 휘장처럼 둘러져 축하와 자식의 행복을 바라



祝日_100F, oil on canvas, 2023.

는 염원과 희망을 전하는 듯하다. 두터운 마타에르는 무라카미와 순수한 우리네 정서와 그 결을 같이 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의 조화는 섬세한 우리 민족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송대호 화백은 이번 전시에 대해 “이번 개인전은 제8회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개최한 만큼 그동안의 작업과 작품 내용의 변화를 선보여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하며, “색감의 조화 또는 깊이 있는 층에 대한 관심으로 대상의 표피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그 속성을 만나는 화면 구성에 집중하고, 저만의 서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공예품과 유물을 통해 선조들이 살아왔던 흔적에 대해 음미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성을 담아냈다.

은유의 도시, 부산을 그리다



은유의 도시-부산_112x486cm, oil on canvas, 2023.

부산의 풍경 화폭에 담아
삶과 생명력 표현
Digital painting도 선보여



부산 주변 산하와 부산항을 주제로 긴 시간 끈질기게 부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온 김중진 화백의 전시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마평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2004년부터 천착해 온 큰 그림 <은유의 도시, 풍경으로서의 부산>의 전시 맥락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김 화백의 1990년대 작품부터 <은유의 도시 부산(112x486cm, 2023)>을 포함한 오일 페인팅 작업과 먹, 소묘 작품,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에 드로잉 소품까지 선보여 그의 다채로운 작업 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기회를 선사했다.

부산의 도시 풍경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194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하여,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살의 나이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부산

으로 내려온 김 화백에게 부산의 풍경은 그의 전 인생을 가로지르며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다. 어린 시절 아픔을 뚫고 나온 자갈치 시장의 불빛은 그에게 삶의 활기와 생명력을 전했다. 힘든 피난민 시기를 겪은 아에게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은 삶의 희망을 은유한다. 아들이 있기에 밝음이 빛을 발한다. 아들도 힘든 시절을 겪은 자만이 밝음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법이다.

도시는 생성과 소멸의 장소이며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이다. 두껍게 쌓은 물감은 도시의 축적된 시간을 내포하며 캔버스를 채운 강렬한 색감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묘사한다. 특히, digital painting에서 선보인 과감한 터치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표현력은 긴 세월 작업에 몰두한 화력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작품 준비 중 예기치 못한 어깨 부상으로 2년여 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기존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 어깨에 무리가 적은 디지털 페인팅 작업을 지속했다”고 말하며, “전화위벽이랄까? 이를 계기로 디지털 페인팅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작업은 <2024, 은유의 도시-부산> 시리즈와 함께 계속 진행할 작정이다”고 전했다.

보이지 않는 내재적 근원 그려내

응시(Gaze)의 역설
간결한 선의 그어짐과 색으로
회화의 사물성 드러내



큰 획의 붓질로 화면은 역동적인 공간이 되고 무심한 듯 던져진 간결한 선과 색은 생명체의 본성과 에너지를 드러낸다.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후, 무한의 운동으로 주파하는 현행성을 정신적 기반으로 추상 작업을 이어 온 신성호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응시(Gaze)’를 타이틀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마평화랑에서 열려 많은 이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성호 작가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과 보다 근원적인 에너지를 최소한의 회화 언어로 시각화하며 마치 파편과도 같은 던져짐과 그어짐을 통해 완전할 수 없는 세계와 생명의 양태(樣態)를 가시화했다. 이를 통해 작품이라는 사물 그 자체의 사물성을 드러냈다. 그 드러남은 완전함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며, 결국 가상으로 형성된 공간을 통해 생명체 내부의 기운과 생명체의 의지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그는 “나의 작품은 그렇게 존재하는, 태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질료의 던져짐과 다름 바 없는 삶의 여러 양태를 암시하며, 존재하는 생명체 내면의 의욕을 가시화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



Gaze 2202_100x100cm, 아크릴인료 볼크, 2022.

했다. 또한, 행위의 축적인 바탕의 거친 드러남, 인위를 거부하면서 인위이자 인위가 아닌 것, 있으면서 없는, 어떠한 것도 아닌 부재하는 것의 존재감을 환기하기도 한다. 의식과 의도를 최대한 줄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축적을 통해 추상성과 회화의 본질에 다다르고자 한 그는 “예술창조는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근원적인 행위, 현실의 상을 변형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한다. 현실의 물질적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나의 그리기는 하나의 감각 존재이며,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성호 작가는 화면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각적 경험이 아닌 우연의 사태로서의 그리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사유와 생명의 내재적 에너지를 표현하며 근원적 감각을 일깨운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24

「부산연묵회(研墨會) Since 2004

먹으로 미술을 연구하는 구상 한국화 작가들의 모임



지난 정기전에서 부산연묵회 회원들의 단체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연묵회 창립전 도록 표지.



정금순_거곡_56x36cm, 화선지여액, 차액.



박정숙_강원도 정선의 하루_160x130cm, 화선지여액, 차액.



장인만_동강의스전_70x130cm, 한지에 차액.

부산연묵회는 30년 이상의 연륜을 갖춘 원로 및 중진 화가들로 구성된 미술 단체로 시대성, 예술성,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침체의 위기에 있던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 실경주의를 지향하는 한국화가들이 모여 변화와 새로운 모색을 통해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어려움을 겪던 부산 한국화가 현재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국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는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집집마다 한국화 한 작품 걸리지 않은 방이 없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전통 한국화가 2000년대 초 생활공간의 변화와 함께 침체기를 맞게 됐다. 작품 판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한국화 작가들의 서양화 장르로의 전환이나 사군자나 민화 작가로 전향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부산 한국화 작가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산이 타 도시 한국화에 비해 저평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전통 한국화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서 한국 미술계에서 설자리를 잃어간다는 위기 의식은 한국화의 근대, 현대, 미래를 연구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국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 한국화의 재도약을 위해 부산의 한국화가들이 결집하게 된다.

2004년 3월 25일, 부산에 거주하는 화가 중 전통 구상 한국화를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오던 이들이 석재화실에 모여, 먹으로 미술을 연구하고 연마하며 전통을 계승할 후진 양성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아 연묵회(研墨會)를 창립하게 된다. 그해 12월, 고일웅 작가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오도순, 유영욱, 이정근, 박기욱, 서창숙, 조현보, 정명수, 장익만, 김시웅, 정인우, 이학균, 김마숙 작가 등

총 13인이 모여,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개최하며 부산연묵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정기전을 열어 결속력을 다지고 전통 한국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른 미술단체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회원의 100호 대작전으로 정기전을 개최한다는 점이다. 축적된 시간과 감수성을 고스란히 담아 1년 내내 작업한 100호 이상의 작품들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감상자에게는 진한 감동을 선사해 한국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부산연묵회는 정금순 회장을 필두로 하여 김은미, 김은숙, 김종학, 김택진(총무), 김홍식, 문대희(감사), 박기욱, 박선민, 박정숙, 유영욱, 이선애, 장익만, 정명수, 정창환(사무국장), 조현웅, 허희 작가 등 17명이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금순 회장은 "근면, 성실과 회원 간의 우애, 그리고 선후배 간의 소통은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기전 이외에 상반기·하반기 자연풍경 좋은 자리산이나 말양 등지로 떠나는 1박 2일 야외스케치 겸 야유회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매월 모임을 열어 회원들의 작업실 탐방, 유명 전시관이나 박물관 관람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처럼 부산연묵회는 회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 교환과 작품 연구 등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한다. 정금순 회장은 "부산연묵회는 한국화의 본질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의 예술적 내공을 통해 성장해 왔다. 앞으로 현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화 표현기법의 혁신과 전통적 이념을 결합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연묵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한국화 기법들을 선보이기 위해 예술적 성취를 높여 나갈 것이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컬렉터 집중분석

- 스무번 째 이야기



김성현
미술경영학과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협회원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스 신전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지만, 그 작품 속에 들어서 있던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

일상성(日常性, alltaglichkeit), 이미지의 영원한 주제 1.



마르틴 하이데거와 그의 명저 <존재와 시간-존재론/동서양철학사

컬렉터를 지도하며 그들과 아티스틱과 아트투어들을 다반사로 찾아가는 필자는, 독창적이며 작품성이 탁월한 작품들에게 당연히 관심이 먼저 가지만,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작품들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항상 검토해 본다. 그 중 많은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 답을 잘 찾을 수 없는 '일상성'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기에 그 차이를 만들어 내어 관심을 갖게 작품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근·현대 미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일상성'의 개념과 그 개념을 미학적으로 이미지화한 위대한 작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독일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로 꼽히는 마르틴 하이데거는, 누구나 쉽게 알고 얘기하는 '일상성'을 철학적 담론의 개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그는 그의 명저 <존재와 시간>에서 반복되는 일상성을 다양한 층위로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처해있는 실존의 구조를 현존재(現存在)와 세계-내(內)-존재(Das in-der -Welt-sein des Dasein)라는 유명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는, 자기 스스로 주제 의식을 가진 인간을 말하며, 객체인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실존으로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즉 '보통 사람'을 말한다.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 즉 주제의식을 갖고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즉 '타인들·대중들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발언조차 하지 못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주제라는 고유한 권리마저 내던져 버린다. 하지만 미술사에는 그러한 타락한 타인에게 시선을 맞춘 그림이 아니라, 일상성을 담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던지는 강렬한 그림들이 존재한다. 그중 인상파를 태동케 한 인물, 마네의 문재작 <올랭피아>는, 오만과 타락한 백인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마네는 당시 백인 남성들이 당연히 여겼던 일상을 작품 소재로 그렸지만, 그 주제는 당대의 일부 남성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백인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 미술사에 걸작 중의 걸작으로 남게 되었다.



마네, 1863, <올랭피아>

‘난 니아갈 빙하를 찾았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이 아니라 1862년의 파리 그 자체였다.’
- 에두아르 마네 -

그리고, 미국인의 상실을 담은 화가로 미국의 정신이라고도 불리는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1882~1967)의 그림들 소개 역시 '일상성'이다. 세계대전과 산업화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겪은 미국인들의 심리,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소재로 강렬한 빛에 의한 질은 콘트라스트를 살린 화면이 오히려, 당시 미국인이 처한 더한 소외감을 증폭시킨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가까이 있지만 그대가 그림대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더한 상실감과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그림 속 등장하는 텅 빈 거리와 건물 창들의 풍경은 더한 황폐감을 주고, 도시인의 권태는 군중 속에 있어도 더한 공허로 다가오게 한다.

- To Be Continued -



좌) 에드워드 호퍼 작품. 우) 호퍼 작품을 패러디한 신세계광고, '내 리면 언제까지요.'

부산 원도심의 역사 복합문화공간,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지난 1월 개관했다.



본관 지하 금고미술관에서는 청년작가들의 전시가 펼쳐졌다.



금고 미술관은 옛 한국은행 금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다. 비교적 전국에서 따뜻한 지역에 속하는 부산인데 바람이 제법 매서웠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깥보다 실내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끌리곤 한다. 오늘은 따뜻함이 가득한 '부산근현대역사관(Bus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 Museum)'으로 역사 문화탐방에 올랐다.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과 부산근현대역사관을 연계 리모델링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새로운 형태의 역사 복합문화공간(複合文化空間)을 조성했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별관은 1929

년 건립된 서구 양식의 근대 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 부산지점이었던 해방 이후 약 50년간 부산 '미국 문화원'으로 운영된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산근현대역사관'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열린 문화공간'이 보이고 왼쪽에 '물품보관함', 오른쪽에 안내데스크와 그 옆에는 '기념품 샵'이 있다. 평일인데도 1층 카페테리아 공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 보였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곳에는 '금고 미술관'이 있다.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본관의 관람 순서는 지하 1층부터 '금고 미술관'→2층 기획전시실→3층 상설전시실→4층 상설전시실→5층 수장고→6층 옥상정원으로 이어진다.

'금고미술관(金庫美術館)'은 이 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설이다. 1963년 한국은행 부산본부로 건립할 당시에 지하 1층은 화폐 등을 보관하는 금고실이였다. 금고실은 제1, 제2, 제3, 제4의 금고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금고의 내부 구조 및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놀라웠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展을 소개해 본다. 전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며 1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기획전으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근현대 문화와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예술을 선보인다. 거대사(巨大敘事)만이 인정되었던 시대는 과거가 되었고, 동시대(同時代)는 미시사(微視敘事)도 존중되고 기록되어 진다. 작가들은 기억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 의미를 재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은밀한, 챙겨 보지 못했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Part 1 <존재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 이야기>는 박한샘, 조정현, 나미아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산의 자연환경을 살펴본다. Part 2 <사라지고 있는 내밀한 원도심의 이야기>에서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쓸모없이 버려지는 사물에 주목한다. 버려진 사물을 창작의 소재 또는 모티브로 삼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킴으로써 원도심 문화에 담긴 가치와 가능성의 흔적을 밀도 있게 들여다본다. 김수, 정작까, 최원규, 이민길, 전해진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Part 3 <숨겨져 있지만 가뱀지 않은 사적 이야기>는 부산에 살면서 체험했던 작가의 개인 생애사,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고찰하고 청년 예술가의 삶을 다채롭게 해석한 손형오, 정시네, 장안용, 김재용, 조정현, 문자영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매 세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은 전국 최고 열기를 자랑하는 부산의 또 다른 이름 '구도(球都) 부산의 이야기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동반하는 학부모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구의 도입 과정과 부산이 야구 도시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 전시장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올라가면서 사진도 찍고 잠깐 쉬어가며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을 보니 왠지 순수한 모습들에 힐링이 되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특별한 순간들이 내일의 추억이 될 것이라 믿는다.

3층 상설전시실은 최초의 개항 도시로 근대문물의 창구이자 대륙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 근대도시로 발전한 모습과 한편으로는 수탈과 억압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모습을 전시해 부산의 근대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에는 한국전쟁 때 피난민의 생존 공간이자 다방으로 대표되는 파란 문화가 있다. 부산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외세 침탈의 최대 피해지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다. 4층 상설전시실은 1960~70년대 경공업 산업의 메카이자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모습,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자 4·19와 부마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 무대였던 부산의 현대를 보여준다.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진 전시는 Part 1: ①관문을 열다 ②달라진 부산, 근대의 사공간 ③부산항의 변천 ④근대를 향한 발걸음. Part 2: ⑤생존

과 희망의 도시 ⑥산업화 시대의 부산과 부산 사람들 ⑦부산, 민주항쟁의 중심에 서다를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인문학 거점 역할을 하는 '별관'으로 들어서면 환한 터널형의 통로가 아늑하다. 프로그램은 별관 살롱, 월간 공연, 북큐레이션 전시, 인문학 관련 체험 및 도시탐사, 워크숍, 어린이 체험실 등이 있다. 1층에는 부산 근현대사 관련 도서 등 1만여권의 소장 도서와 아카이브 자료가 보인다. 2층 전시 공간에 마련된 전시 유물과 패널, 정보 영상을 통해 해당 시기의 역사·신문 기사·유물·사진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휴게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시민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아치형의 이색적인 형태의 좌석과 어린이 도서 열람 공간이 자리잡았다. 조용히 '부산서기'에 이르니 어른산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예쁘고 이색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부럽다.

관람을 마치고 고개를 드니 가까이 부산 최초의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남아있는 '용두산공원'이 보인다. 보수동 책방골목, 임시수도기념관, 국제시장, 40계단 등 원도심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술평론과위원 진수아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1월 1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무료 / 찾아오시는 길: 부산시 중구 대청로 112(대청동 1기 44,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및 사무실 주소: 부산시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 2기 24-2,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 대중교통: 지하철 중앙역(1호선) 5번 출구 도보 6분, 남포역(1호선) 1번 출구 도보 13분 / 버스 15, 40, 81, 86, 126, 186번 / 주차: 인근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이용 / 문의: 051-607-8002(본관), 607-8001(별관)

'부산! 미술로 꿈꾸게 하다' 최우수작가 초대전

부산지역 젊은 미술인의 축제인 제11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ECH展에서 최우수작가로 선정된 김상지(서예), 박지현(서양화), 이수영(한국화) 작가의 초대전이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사 부산미술협회는 지난해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공모에 참여한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을 선별해 최우수작가와 우수작가를 선정한 바 있다.

작년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우수작가(박민혁, 신가을, 안영주, 조예라)들의 릴레이 개인전에 이어, 이번에는 최우수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려 뛰어난 기량을 한껏 뽐냈다. 김상지 작가는 전통 서예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 서예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보는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지현 작가는 코끼리의 형상을 통해 상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다층적 자아상을 담아냈다. 이수영 작가는 전통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2023 부산! 꿈꾸게 하다 최우수작가전 전경(김상지 작품).

쉽게 지나치거나 사라지는 풍경과 인물들의 모습을 화면에 옮겨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부산미술협회는 부산 미술계의 미래를 짊어질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ECH展'을 열어, 부산 미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 작가들이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 new wave' 최우수작가전 개최

사)부산미술협회,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주최로 열린 제12회 BF&A아트페어 청년작가 특별전 'new wave展'에서 최우수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특별 초대전이 열렸다.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에는 청년작가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김주은, 이루나, 유현찬 작가가 참여했다. 참신하고 각자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사)부산미술협회는 제12회 BF&A아트페어에서 현시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동시대 청년작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작가 특별전 'new wave展'을 개최했다. 부산 지역 대학교 미술대학 재학생 중 경성



'2023 new wave' 최우수작가 초대전이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대학교 5명, 동아대학교 8명, 부산대학교 9명, 신라대학교 2명으로 회화,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작가들을 초대해 대형 부스전을 열었다. 최우수작가와 우수작가가 포트폴리오와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7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칼럼

2024년 미술시장 전망과 지역의 과제

팬데믹 시기 매년 새해 첫 칼럼을 미술 생태계의 전망으로 시작했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본 필자의 예측이 대부분 적중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2024년 역시 미술시장을 전망해 보려 한다.

유독 변화에 민감한 한국은 미술시장 역시도 빨리빨리 통용되는 한국의 특수성과 맞물려 급히 성장하였다. 본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마니프 이후 생성된 아트페어들의 성장 주기는 10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과 맞물려 성장과 하락 곡선을 이가고 있다. 예측이 맞다면 향후 5년 이상 내림세의 곡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 미술시장의 현상은 예측 못 한 듯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버린 의미 없는 아트페어가 300여 개 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술시장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기세로 가다가는 2024년 아트페어나 유사 미술 마켓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이러한 속 사정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전반적인 미술 경기는 나쁠 수 있어도 이것이 곧 기회인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신인 작가들의 등장과 그 작가를 위시한 신생 갤러리들의 출현을 근거로 말하고 싶다. 다만 기존의 화이트 큐브의 형태가 아닌 복합적인 플랫폼의 형태로 아주 자능적인 사업의 생태계를 보여

줄 전망이다.

또한 본 필자가 2년 전 전망한 작가의 IP 관련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2024년이 되자마자 일리 커피에서 출시한 일리x이우환 라미티드 세트와 스타벅스에서 출시한 김선우 스페셜 에디션은 완판을 지나 리셀 시장에서 이미 가격이 급 성장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년 전 예측하며 강조했지만, 미술은 더 이상 어려운 분류의 부유층 산물이 아니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활 속의 예술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미술계의 새로운 도전이나 미술 사업의 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사업 초반의 불모에서 불어 김선달의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 사정이다.

본 필자의 2024년 미술시장을 전망하는 관점은 크게 5개로 나뉜다.

1. 3년 안에 아트페어의 생태계가 변화, 그 변화의 첫 시점
 - 프리즈 서울로 인해 판매의 개념에 정체성과 세계적인 트렌드의 반영이 본격화됨
2. 미술관 작가, 아트페어 작가의 모호성이 가지를 지형변화
 - 기존의 고장적 셀럽 작가를 탈피 생동적인 미술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 다양한 개성이 추구됨
3. 살롱 문화의 본격적인 대두



2023 화랑아트페어 전경.

- 각자 갤러리만의 기획, 작가 육성의 활성화 / 아트워크의 내밀성을 통한 아트페어 기간 각자의 갤러리 및 작가의 홍보(기획력이 뒷받침되는 내실성의 유무)

4. 본격적인 글로벌적 MZ세대의 대두
- 판매의 지형도 변화, 아트페어의 문화, 개인주의적 발상에서 오는 미술 생태계의 변화

5. 글로벌적인 유사 아트페어 발생으로 인한 지역 아트페어의 정체성 대두 기대
- 더 이상 권태로운 아트페어가 아닌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담론의 형성을 기대

위의 전망에서 본 필자는 화수분처럼 생성하는 권태로운 전국의 미술시장, 아트페어나 유사아트 마켓 형식의 행사 속 정체성

있는 지역 아트페어를 신중히 주시하고자 한다.

지역 미술시장의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문제는 책임감 없는 '국제'라는 표기를 남발하여 쓴다는 것이다. 국가, 외국 작가 참가 비율이 미비한 가운데 규제 없이 싸버리는 국제 행사는 결국 국가 예산 반영 외 성공적 결과론으로 이어지지만 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수치 반영 상 실제 채감 판매 금액과는 괴리가 있는 거품의 금액 수치가 결과로 발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물론 그의 여러 문제적 요소가 더 있겠으나 요지는 밖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 허탈해지는 참가 갤러리, 작가들은 지역을 떠나 중앙무대로 향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결국 몸집 키우기보다 지역의 내실이 중요한 관점이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그 문화를 진화해 나가기까지 지역에 걸친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말이 쉽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그러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역 예술의 현안인 것 같다. 또한 미술을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돈벌이로 생각하고 뛰어든 사업가 출신들이 자양되거나 업계의 반성과 진실된 성숙한 변화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김종원 (미술평론가 겸 큐레이터)

Close Up 26

어둠을 밝히는 빛, 희망을 밝히다



청년작가 정미진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 어귀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발자국 소리를 빗 삼아
저 멀리 새어 나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기대어
잔걸음을 옮긴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어릴 적 골목길 풍경 속에 자리한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좁은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해 질 때까지 놀다가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면 얼마가 밥 먹으라고 창문 너머로 소리쳐 부르던 옛날 우리 집, 어슴푸레한 새벽 동녘길마다 늘 2층 베란다 창문으로 배웅해 주던 엄마, 캄캄한 하룻길엔 골목길 어귀에 서서 나를 기다리던 아빠와 남동생,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가



간인사_53x72.7cm, 판넬 위에 혼합재료, 2022.

죽과 한층 차이로 분리된 옥탑방에서 홀로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던 시간, 내 시선을 따라오던 밝게 빛나는 달이 나만 쫓아온다고 믿었던 그때의 나와, 노란 가로등 불빛에 드리워진 큰 그림자를 나의 진짜 크기라 믿고 싶었던 그 골목길이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이후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듯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잠식된 적이 있다. 길 잃은 사람처럼 한참을 헤매며 지 지부진하던 시간을 그나마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올라다본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빛처럼, 골

목길 가로등 불빛처럼, 간간히 켜져 있는 어느 가정집 넘어 불빛처럼, 희미하게나마 내 인생에서 빛났던 순간들과 빛과 같은 사람들, 그것에 의지해 두 발을 딛고 선 후 한 걸음 옮길 힘이 생겼기에 가능했다.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괜찮을 거야..’

힘든 일상 속 떠올리면 가슴 따뜻한 기억들 막에 또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 내 작업의 대부분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거나 주변 이야기이다. 일상적인 소재를 달이 내 시선을 따라왔듯이 희망



달밤, 45.5x45.5, 판넬 위에 혼합재료, 2022

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온다.

작업 방식은 콜라주라 불리는 판화 기법 중 하나인데 하드보드에 종이나 제품 포장지, 색지, 테이프, 박스 등 다양한 질감의 사물을 여러 형태로 잘라 붙여 이미지를 표현한 후, 그 위에 잉크를 칠하고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이다. 나의 작업은 종이에 찍어내기 전 판 작업을 발전시켜 캔버스에 옮긴 형태인데 물감 대신 종이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이용하고, 종이의 두께를 변화시켜 입체감을 준 후 잉크를 닦아내는 정도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다. 잉크를 전체에 다 펴 버리고



나의 작은 나에게_60.6x72.7cm, 판넬 위에 혼합재료, 2022.

달아닐 부분은 닦아내고 어둠에 남길 부분은 닦지 않고 남긴다.

오늘도 나는 작업을 반복하며 빛을 따라 조금씩 걸음을 떼어본다.

경북대학교 수시리해대학원
법정의학과 수료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Elsevier, Inc. 출판사 소속 프랜시스,
미국 휴스턴 베일러 외대 신경외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개인전 3회, 아트페어 등 그룹전 다수 참여
광복 70주년 기념 미술을 뛰게 하는 태극기전 우수참여작가상
GIAF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평면부문 대상

서양화분과 김응기, '제6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선정



서양화가 김응기 1956년 제정되어 수상자 416명을 배출한 부산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 부산 행사 미술을 주도하며 두각을 나타낸 김응기 작가는 제2회 부산청년미술상과 제8회 송해수 미술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재까지 16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단체전에 200여 회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0대부터 일관되게 '메모라는 주제에 천착해 꾸준히 <memo 시리즈>를 발표해 온 그는 인쇄된 종이에 글자와 사진이 전달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사람, 동물, 문자, 기호 등의 복합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일상을 메모하는 것처럼



메모_92x68cm, 종이 위에 혼합재료, 2023.

작가에게 작품이란 경험, 사진, 관심사등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표현 재료와 제작 기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작가적 의도를 구체화하며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김응기 작가는 이번 수상에 대해, "격려와 칭찬 보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화면의 조형 질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지운(芝云) 김정희, 노자를 만나다



서예가 김정희

서예가 지운(芝云) 김정희 작가의 개인전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지난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노자의 '도덕경' 全文 5,200여 자(字)를 가로 70cm, 세로 1m 크기의 화선지 63장에 초서(草書)로 써 내려간 2,000호에 달하는 대작을 선보여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33점의 서예 소품과 문인화 8점을 함께 전시해 긴 시간 작품에 매진해 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현재 도덕경은 위나라 왕필의 주석본이 널리 읽히고 있지만, 김정희 작가는 중국 호남성 마왕퇴에서 발굴된 백서본(帛書本)과 호북성에서 나온 죽간본(竹簡本) 등 옛 자료를 참고해 정본화한 도덕경을 대본으로 삼아 노자 언어의 원본에 충실하고자 했다. 특히,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인



70cmx100cm, 화선지 63장에 달하는 도덕경 전문과 소품이 전시된 전시장 전경.

한유(韓愈)가 「송고한상인서(送高閑上人序)」에서 장욱(張旭)에 대해 남긴 글을 읽으면서 장욱처럼 초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초서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시 구상에서부터 실제 완성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는 그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할 때 도덕경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대교약졸(大巧若拙)'의 줄박임을 염두에 두고 창작에 임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혼의 울림이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양 사상에 근거한 작가의 직관과 통찰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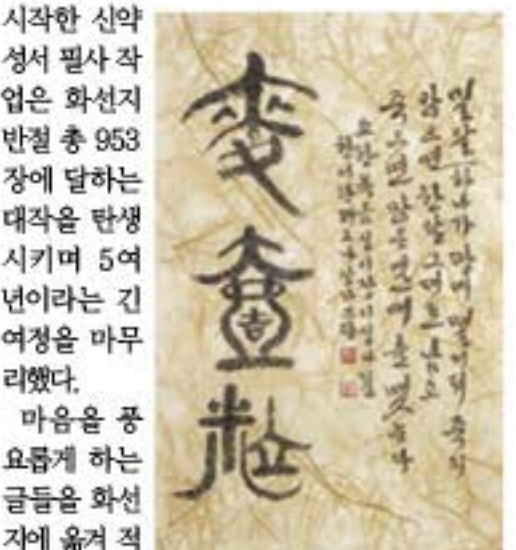
말씀의 길, 그 빛을 향하여



서예가 한서란

송파(松波) 한서란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재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약성서 전문 필사본(한글 궁체), 신약성서 주요 구절과 선현들의 말씀을 붓으로 써 내려간 작품들을 전시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인화, 연필 데생과 펜 수채화 기법으로 그려낸 파에타, 예수의 십자가상, 마리아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62점을 전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에치미아진 성당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아름다운 성당들을 그린 작품들로 많은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6년 첫 개인전 <문자향-솔바람에 실어> 이후, 다양한 미술 장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한 작가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옮겨 보자고 마음먹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기에 성경 말씀을 비롯한 선인들의 훌륭한 말씀을 작품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렇게



말씀의 길(백일련) 요한복음 12장 24절 39x63cm.

시작한 신약성서 필사 작업은 화선지 반질 총 953장에 달하는 대작을 탄생 시키며 5여 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글들을 화선지에 옮겨 적으며 남을 배려하는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다는 한 작가는 "붓을 잡을 때마다 늘 부끄러움만 느껴져 망설였는데, 성경의 숭고한 말씀과 주옥같은 명서들이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나를 견뎌니다



설치미술가 박영선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주의로 인한 개인의 갈등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이어 온 설치미술가 박영선의 개인전이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금련산 갤러리에서 열렸다.

에밀 시오랑(Emil Cioran, 1911-1995, 소설가)의 저서 『태어났음의 불편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 나는 나를 견뎌니다."라는 내용을 영상화한 이번 전시는 바느질과 페인팅, 오브제 등을 이용한 설치 작업과 조형 작업으로 구성됐다. 가정을 의미하는 집과 자아를 상징하는 봉제 인형을 통해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한 개인으로서의 갈등과 상처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하고 있다. 외부의 자극에 스스로 방어하듯 어깨를 붙이고 빙 둘러앉은 인형들과 붙고 가는 긴 혀와 뒤엉켜 그물망에 쌓여있는 인형의 모습은 언어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



타겟이 되다 _mixed media, 2m이내 기변설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집단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개인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까지의 작품 활동이 그동안 본인에게 내재되었던 갈등을 스스로 해소하고 극복하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창작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머무는 집의 따뜻함에 대하여



서양화가 노금화

집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 온 노금화 작가의 개인전 'Being Together'(함께라는 것)가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젤갤러리에서 열렸다. 작품 속 다다다다 붉은 집의 벽면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노 작가의 집은 단순 도시 풍경의 일부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집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의 집들은 화려한 색을 입고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한낮의 집과 해질녘 어스름한 시각의 집에 대한 감상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대기의 빛을 머금은 집들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깊어진다. 그는 "모두 제마다의 집을 마음속에 짓고 살아간다. 아늑한 집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색으로 기억된다"고 말한다.

서양화 작가지만 한국화 재료에 매료되어 동



푸른마을_116.8x91.0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서양화 재료를 혼합해 작업한다는 노금화 작가는 "삶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집은 따뜻하고 행복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7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라 심혈을 기울였다. 소재와 재료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다양한 재료가 필요해서 힘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문제, 꽃으로 이야기하다



도예가 하영주

작품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해 온 하영주 작가의 전시가 자명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열린 이번 개인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 상황을 겪는 북극곰과 계절을 벗어나 피고 지는 꽃의 형상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주로 도자 꽃 작업을 이어오던 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흙을 빚어 만든 북극곰, 빙하와 꽃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과 도자 소품들을 선보였다.

하영주 작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문제에 눈을 뜨리게 되고, 최근 4~5년 전부터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작품에 북극곰을 등장시키게 된다. 특히, 초겨울 작업일 앞 화단에 봄꽃인 데이지가 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 등



꽃으로 말하다 _200x200cm, 기변설치.

기후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상징이다. 여기에 꽃을 더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내 작업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명사칼럼



임동구
공간경영그룹 No'Art
(동북아문화예술거래 사업단) 총괄대표

부산, 새로운 미술산업의 봄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변화의 문턱에서 3월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마나면 바다의 끝 수평선의 경계에서 다시 시작되어가는 푸르른 하늘의 경계를 그리고 있고, 구름사이로 내리는 밝은 빛의 멋진 풍경을 그려내고 있음을 보며, 이곳 부산이라는 장소에서의 새로운 봄의 사건들을 기대해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삼월 즈음, 부산이라는 이 장소 안에서 아름다운 미술계 산업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짧은 몇 가지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 속에서 항상 예술을 이야기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며 예술을 이야기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작가들의 깊은 고민을 통해, 현실과 맞서고 있는 도전들을 보고 있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많은 양식과 문화조차도, 소멸되고 대체되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새로운 문명의 변혁의 시기도 맞이하고 있는 현재,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도, 곳곳하게 한걸음씩 나아갈 도전의 가치와 의지로 불을 지기고 있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지성과 기술문명의 한 중심에서 우리의 미술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 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큰 변화 속에서 진보를 거듭해왔던 근현대의 미술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의 중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술이 새로운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현실안에서 더 다양한 영역을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다른 영역과의 충돌과 충격의 임팩트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발생될 그 에너지를 과감히 예술계로 집적시키고, 이를 통한 실험과 제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약이 아닌, 하나의 소재이자 에너지로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유의 미술의 영역을 지키는 것보다, 미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더욱 진취적이고도, 노마딕(Nomadic, 유목적인)하게 그 다양한 영역을 모든 우리의 현실안으로 끌어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세계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공간은 다양한 현실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술과는 매우 상반될 수도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공공의 공간 외에도, 상업적인 수많은 현실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안에서도 우리는 차별한 현실을 예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성과 창의성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영역의 한계를 미술이라는 한 분야에 규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다양한 영역과 과학, 건축, 산업경제의 폭 넓은 각 산업의 구조를 최대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통합적 사고로,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술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을 더욱 활용하는 공간예술의 영역을, 예술의 또 하나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예술의 캔버스를 구상적인 세상사와 현실로 더욱 확장하여, 더 많은 드라마틱한 크고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종합예술, 공간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구상적 공간을 프로젝트로서 다루는 현대의 많은 건축가 즉, Architect에게 모든 판단과 예술의 가치를 한정 짓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점유하는 공간예술과 기획을 통해, 현실영역을 장악해나가는 진취성을 필요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막을 열었던 아방가르드의 의미가, 이제는 21세기에 다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은 예술을 살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현실 속에서 더욱 차별한 현실을 다룹니다.

이제 예술은, 공간을 그리고 기술을 여러 형태로 더욱 혁신적인 실험으로 자유롭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이어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하는 예술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와 실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린 다음과 같이 함께 도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미술은 높은 수준의 지성의 영역으로서 계속해서 의식을 확장해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더 많은 실존적 공간의 영역을 확장점유해나아가야 합니다.

공적공간, 사적공간, 기술적 환경의 공간, 버려진 공간, 공공의 공간, 사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안 곳곳 깊숙한 곳으로 우리의 예술은 실존적 공간들을 점유하여 대중화에 더욱 넓혀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간속에서 예술은 과학화, 종합화, 더욱 고도화된 기술화를 실천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예술가들이 일상과 현실 안으로 예술을 끌어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콜라보하며, 우리의 일상과 현실 안에서 실존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을 실험하고 다음세대들을 더욱 적극 발굴, 성장시켜 더 큰 환경을 만들어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공간을 메타버스, NFT 그리고 비물질화된 예술공간의 영역으로 최대의 활동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참깨된 경제의 분위기속에서 현실은 더욱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악한 현실의 한계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산이라는 지방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핍적 현실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지방의 제약 안에서 예술적 태동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머리뿐만, 그리고 가슴으로만 뛰는 그리고 나의 영역과 경험안에서 세상을 담은 예술가들이 아닌, 오늘날과 같은 차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이라는 본질적 의미와 새로운 산업과 인류문명의 변화의 앞에서, 실존적 실험 가치를 고민하는 예술가들로서, 사회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인본적이고 집단화된 지성을 고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구조안에서 '예술의 현재화, 예술의 인간화 (Humanization of ART)'를 슬로건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진작가들에 대한 원로작가들의 도움과 격려와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신진작가들의 세계화의 무대에서 거침없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들과 도전에 대한 이해와 진심어린 응원과 지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미술계가 새로운 시대에, 한국 미술계를 견인할 아름다운 봄날이 오기를 손모아 진심으로 염원해봅니다.

제4회 민화·불화분과 정기전 개최



제4회 민화·불화분과 정기전이 지난 12월 26일부터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청 3전시실에서 부산미술협회 민화·불화분과 정기전이 열렸다. 우리 민족의 삶과 영원, 정서가 담긴 민화,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부산 민화·불화인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기전은 부산미술협회 민화·불화분과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미술협회 민화·불화분과'와 '대한민국 민화작가회' 소속 회원 중 19명과 비회원 22명 등 총 41명이 참여

해, 해학반도도, 약리도, 봉황도, 십장생도, 책가도, 화병모란도 등과 불화분 포함해 총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정기전에는 전통 민화뿐만 아니라 창작 민화도 다수 출품돼 대중에게 민화의 매력을 알리고, 회원들의 창작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현대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작품들과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로 구성해 현대 민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화·불화분과 문명화 전 회장은 "족심 있는 훌륭한 회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민화 작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아직도 우리 민족의 그림인 민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에 처해 있지만, 민화 특유의 조형성과 소재로 우리네 삶과 정서를 담고 있어 국내외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민화의 뛰어난 예술성과 겨레의 고운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고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제21회 여성현대미술작가회 정기전



제21회 정기전 전시전경.

현대미술을 표방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미술 단체, '여성현대미술작가회'의 정기전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정기전은 2003년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린 창립전 이후, 21회째를 맞이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한세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회원 15명 전원이 참여하여 30~50호 사이즈 기준 작품 총 15점을 선보여, 한국화, 서양화, 판화에 이르기까지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였다.

사)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여성 전업 작가들이 모여 시작된 여성현대미술작가회는 매년 정기전과 소품전을 열어 작품 발표 위주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물에 박히지 않은 진취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장르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이어간다는 여성현대미술작가회는 실험적 작품과 소재와 재료 개발에 집중하며 다양성을 추구해 나간다.

여성현대미술작가회 강경순 회장은 "동시대 미술에 발맞추어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창작 활동에 임하고 있다. 본회는 앞으로도 각 개인의 기량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경순 회장을 중심으로 강인숙, 구인숙, 김진, 김미경, 김정희, 박미경, 박상순, 박영희, 설경숙, 양계숙, 오정남, 이순란, 이은주, 임현이 작가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영란 개인전 '선물'
2023.11.20-12.1 해운대구청 작은갤러리



꽃과 자연물에 대한 심상을 모티브로 자연 발생적 이미지의 재현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시각화하고 있다. 전영란 작가는 붓 터치와 물성과의 조화로운 이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매일 마주하는 대상의 이미지 생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면화에 대한 관심은 창조적 표현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한다. 대상을 재해석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감정에 대해 그는 '누구나 꿈꾸는 내면적 본향에의 그리움'이라 표현한다.

김종복 개인전
2023.11.30-2024.2.23 소울아트스페이스



화려한 색감과 굵고 강한 선으로 자연의 풍광을 담은 김종복 작가의 전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유화 작품을 판화 본으로 제작한 작품 총 50여 점을 공개해 <파리 근교>, <오대운의 꽃집>, <생 마틸의 과일> 등 파리 유학 시절에 제작된 것에서부터 최신작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다.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그는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강한 붓질로 자연에 대한 경의와 삶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경숙 개인전 '화양연화'
2023.12.11-12.16 부평아트스페이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화려하고 향기롭게 꽃이 피는 순간이 있다. 작가는 그 순간을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겹겹이 쌓인 원색들의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해냈다. 거대도에서의 푸른 바다와 높고 파란 하늘의 빛과 색감은 그에게 영감을 전하고 그 순간은 캔버스에 선과 면, 색으로 표현된다. 그림을 통해 관객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에게 작품은 살아 꽃이 되는 순간의 기록이다.

전영근 '길 위의 시간'
2023.12.15-2024.2.29 갤러리 조이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 여행을 기록하고 길을 떠난다. 낮선 풍경들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상념들을 펼쳐내고 한 발씩 성숙해진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은 희망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일상을 벗어나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마치 통속적이거나 지루하게 그려내 보이는 이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전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와 자연의 풍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영감을 떠올리게 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천은정 개인전 '忙中閑忙中休'
2023.12.15-12.21 갤러리 화인



금속공예가인 천은정 작가의 전시. 주변의 상황에 의해 순간 열정적이 되기도, 차갑게 반응하기도 하는 금속과 보기가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나무의 조합으로, 꽃가득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를 전했다. 금속 부분은 기존의 녹청 기법에 표면처리를 반복해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열 처리 후, 왁스로 표면을 코팅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도 재료와 작업의 확장을 통해 공예의 가능성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김정희 'Visitors of the sea'
2023.12.18-12.23 부평아트스페이스



변화무쌍한 삶의 이야기를 파도도 순화시킨 김정희 작가의 유화전. 판화로 잘 알려진 김정희 작가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해였던 2023년을 기억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깊은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의 번주곡은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한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 삶의 고난과 두려움, 근심의 환호성이 메아리쳐 온다. 견디고 견디던 시간을 지나, 부드러운 바람은 거친 파도를 잠재운다. 이제 그에게 파도는 가슴 벅찬 은혜로운이다.

우정 개인전 '사라질 기억'
2023.12.20-2024.1.5 아델갤러리



철 조각가로 잘 알려진 우정 작가의 회화전. 철의 표면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녹이 생기고 서서히 본연의 색을 잃어간다. 예전에 보았던 사물의 이미지나 풍경에 대한 기억 역시 희미해져나간다. 작가는 사라지는 기억과 철이 가지는 물성의 교차점을 표현하기 위해 녹물 물감을 이용한다. 철 표면 연마 시 생기는 철가루를 소금물에 오랜 기간 담가 숙성시킨 녹물은 그만의 울퉁한 물감이 된다. 그의 녹물 드로잉에는 사라져가는 기억 속의 풍경들이 남겨진다.

최영이 '꽃들의 합창'
1.8-1.19 해운대구청 작은갤러리



긴 어려움을 지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맞이하듯 꽃들 역시 자연의 기쁜 몸부림을 겪으며 저마다의 지대를 드러낸다. 작가는 감사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주제로 보는 이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위안을 전하고자 했다. 많은 꽃송이가 모여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움은 배가 되듯이 꽃들의 합창처럼 함께 어울려 공명체를 이룰 때 가정도 사회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유현민 MOMOROY IN GAMCHEON-산책
1.10-1.30 특벽의 탑 갤러리



새로운 공간에 스며들어 가는 과정과 시간의 흔적을 기록한 모모로이 유현민의 전시. 감천 문화마을에 입주하며 겪은 작업의 변화와 낯선 공간에 적응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천 특유의 아기자기한 집들과 함께 그려냈다. 작품 속에 등장해 감천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소녀의 뒷모습은 작가 자신이며 관찰자가 아닌 공간 안에 함께 있음을 강조한다. 이제는 익숙해져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감천이라는 공간을 선택하는 작가의 여유로움이 전해진다.

금경 '기화(氣畫)-인도 성지순례 느낌전'
1.23-2.23 갤러리 공



기화를 주제로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과 사물 그 자체의 기를 표현한 금경 작가의 전시. 독창적인 추상화와 오묘제를 이용한 설치 작업을 병행하며 자유로운 작품세계로 주목받아 온 금경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해 인도의 8대 성지순례 다녀온 감상을 전했다. 리즈기나의 영축신과 죽림정사에 모셔진 흑갈색을 띤 부처님의 모습과 경지순례 주변의 화강타에서 본 타들어 가는 불꽃에 대한 느낌을 상기해 화면에 옮겼다.

부산 현대작가 소통전
1.24-2.14 갤러리 아범



WS케이에 위치한 갤러리 아범은 신년 기획 '100만 원 이하 소통전'을 열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며 현대성을 표방하는 순수미술가 15인의 소통을 전시에 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표현과 시선들을 엿볼 수 있었다. 자유로운 표현과 시도를 통해 현대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외와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앞으로도 지역 미술이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태호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1.25-2.16 스페이스 나무



수많은 조각이 부서지며 갈라지고 조각들이 만나고 모여 틀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그 틀에서 흘러나오는 응축된 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간의 고통과 번민에서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내포한 틀은 우리의 시각에서 시적이며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한다. 이 공간은 모든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운 유토피아적 공간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난 안식의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배하람 개인전 '심원 [시원하다]'
1.29-2.3 부평아트스페이스



원벽주의가 요구되는 사회를 살아가며 무기력하게 길을 걷다 발견한 잡초의 모습은 작가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볼모없음으로 인식되는 잡초와 뿌리에 대한 작가적 시선을 화면에 옮겨본 그는 잡초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강한 자생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번 전시는 잡초처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15회 藝누드전
1.29-2.3 부산시청 제2전시실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누드 작품들을 선보여 온 藝누드의 15회 정기전이 열렸다. 누드모델과 함께 작업한 크로키를 기반으로 유화, 수채화, 먹, 펜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들로 회원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작품 70여 점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권의경, 김길중, 김미화, 김선영, 서재영, 설경숙, 신미라, 안순금, 안정미, 양수경, 양호정, 유수미, 이미라, 이윤선, 이자순, 전소현, 정영년, 정지연, 제미네, 조소옥, 최예경, 황보연이 등 회원 23명이 참여했다.

김중대 개인전 '달 달 무슨 달'
1.29-2.7 아델갤러리



화면 가득 둥근 달이 됐다. 달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사랑이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달은 소원을 비는 대상이며 어두운 밤길을 밝혀 비춰주는 등불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달이 우리 삶의 터전과 상호작용하며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듯 삶의 적절한 변화와 균형을 이루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에 내재된 의식은 긍정적변화에 대한 약속을 담고 밤하늘로 솟아오른다.

산년 기획초대전 '청룡이 나르샤'
2.19-2.25 갤러리 화인



갤러리 화인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12자신을 주제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서양화, 한국화, 조각, 디자인, 공예 분야 25명의 작가를 초대해 응을 주제로 소통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과 개성 넘치는 표현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일었던 땅을 풀고 나오는 푸른 나무의 기운인 갑(甲)과 수분을 머금은 땅의 기운이자 응을 상징하는 진(辰)처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미숙 '내 마음의 정원'
2.19-2.24 부평아트스페이스



자연풍광과 꽃의 실경을 주로 그려 온 김미숙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작가는 긴 세월 살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게는 아쉬운 아름다운 풍경과 꽃들의 모습,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상념들을 화면에 담아냈다. 유화 작업을 주로 하면서도 서양화와 수채화 등 장르와 기법에 얽매지 않고 구성과 추상을 넘나들며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화폭에 옮겨내며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강정호 개인전
2.28-3.2 부평아트스페이스



유화물감을 매체로 사실적 표현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그려 온 강정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색을 통한 풍경화와 인물화 등을 선보였다. 구상 작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에 대한 의구심과 미의식의 변화에 따른 관객들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작가는 앞으로 붓 터치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해 사물의 객관적인 묘사보다는 좀 더 과감한 상상과 주관적인 색채로 대상의 조형미를 표현할 것을 예고했다.

전시일정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협회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 (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37-320 송협주-메타핀화 Sein 미술관



36-322 보이지 않는 말뚝 윤승 10번째 개인전 이명길갤러리



2023.9.22-2024.3.24 에바 알머슨 부산라이프 23F



2023.10.21-2024.4.14 제41회 서울 청동사 과불명화 특별전 동도시 성보박물관

부산 갤러리 전시소식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417-422 나전 천년의 빛 이진호, 장규남, 조정혜



424-429 최영조 개인전 불 여름 가을 겨울



2023.11.3-2024.4.30 일프킴슨 Political Abstraction 일프킴슨 사진미술관



2023.12.9-2024.6.16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한대모터스튜디오



2023.12.11-2024.3.9 데이완 카반 개인전 갤러리 샵



2023.12.22-2024.6.21 See Through 리나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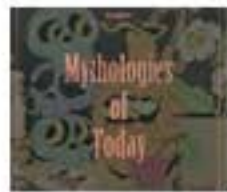
2023.12.23-2024.4.21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동구문화재단



2023.12.27-2024.3.17 매 세로로 이루어진 도시, 부산의 합성 부산근현대역사관



1.26-3.17 일상의 온도 이연필라



1.26-3.10 Mythologies of Today 카반갤러리



1.26-3.29 김정영 김원배 초대전 이연필라



2.13-3.13 박진우 초대전 로터스갤러리



2.13-4.13 유명규 'The purified forest'展 갤러리 이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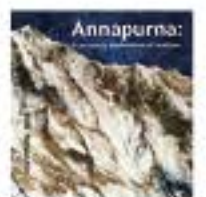
2.14-3.15 Hokkaido-일본전 갤러리 아르슌



2.16-3.9 강혜은 개인전 맥화랑



2.16-3.23 손웅주 초대전 'Floating Sculptures' 유니원스갤러리



2.22-3.10 김남표 개인전 'Annapurna: 회화적 리얼리티' OHP



3.5-4.6 권재나 개인전 'Color Flow' 갤러리 이든



3.11-4.20 신수혁 '임계점 Optical Point' 데이원스갤러리



3.26-4.4 박인관 '빛으로의 묵시'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4.1-4.30 박선희 초대 평화전 르네시매 4층 갤러리



4.2-4.7 현혜경 '아리랑전 4' 금관산갤러리



4.3-4.19 정금순 초대전 남해유배 문화관



4.22-4.27 부산 어류전 6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동행한다 부산시청 3전시실



4.23-4.28 제2회 임재준 금관산갤러리

부산 미술 등록번호 부산남.400005

- 발 행 인 : 최장락
- 발 행 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 편집기자 : 김정미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The 20th SONG HYE SOO Art Award

제20회 송혜수 미술상 공고

송혜수미술상은 **故송혜수**선생님(화백, 1913~2005)의 작가정신을 이어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청 미술인**을 찾아 포상함으로써 미술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미술상입니다. 『제20회 송혜수 미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분야 : 평면(회화), 입체(조각)
- 시상인원 : 1명
- 시상내용 : 시상금 10,000,000원 (시상금 5,000,000원/ 전시지원비용 5,000,000원)
- 후보 자격
 -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평면(회화)과 입체(조각)부문에서 2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작가
- 후보자 추천
 - 한국미술협회(지회)장, 대학총장 및 관련대학 학장, 미술단체장, 미술관 관장, 화랑 대표
 - 10인 이상의 본 협회 회원 또는 미술인 추천 가능
 - ※ 후보자 추천서 양식 ①, ② 확인후 작성바람.
- 수상자 선정
 - 심사위원 7~9인으로 구성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후보자 제출서류
 - ※ 제출서류중 증명자료(원본포함) 반송가능
 - 추천서, 공적조서, 사진1매(명함판)
 - ※ 추천서는 본협회의 홈페이지내 협회소식란 참조
 - 증빙자료 (중복자료 심사제외)
 - ①정량적 평가: 20년 이상의 원본자료 및 실적자료 목록표 ※ 심사표(정량적 평가) 본인 작성
 - ②정성적 평가: 포트폴리오 (전체경력, 연도별 구분)
 - 최종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제외
 - 근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당해 운영위원 및 후보자 추천위원은 제외함
- 서류제출일자
 - 2024년 3월 29일(금) 오후5시까지(부산미술협회 사무국)
- 심사발표
 - 2024년 4월 초(개별통보, 미협 홈페이지, 언론)
- 시상식 및 기념전시회
 - 수상자는 당해 수상기념 개인전을 개최하여야 함
 - 시상금은 수상기념 개인전의 전시개막식 때 수여하며, 수상기념전 미개최 시 시상금은 수여하지 않음
 - 수상 기념전은 부산미술협회에서 지정할 금련산 갤러리에서 개최하여야 함
 - 故송혜수 작가 기념전과 함께 개최함(전시장소 약10m)는 미술협회가 지정전시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 051-632-2400 또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사무국) 협회소식 공고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수미술상 운영위원장 **곽순곤**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이사장 **최장락**

2024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대 제12회 청년작가 _OPEN MECH展 공고

- 참여작가 선정 : 새부산미술협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60명
- 참가신청 자격 : ※ 1984년 이후 출생한 청년작가 (작년년도 최우수 선정작가는 지원불가)
 - ① 새부산미술협회 회원
 - ② 연고가 부산 또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 ③ 부산 소재 미술전공 졸업자
 - ※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가자격이 주어짐.
- 장르 : 평면, 입체, 영상설치, 디자인
- 공모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 3월 21일(목)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4일(목) ~ 3월 21일(목) 오후5시 (가한접수)
- 제출자료 : ①작가공모 신청서 1부
 - ②포트폴리오 (프로필/작가노트/작품10점 이내_자유양식)
- 출품자료 제출방법 : E-mail 접수 (blaa01@hanmail.net)
- 1차 선정심사 : 2024년 3월 25일(월)
- 선정작가 발표 : 2024년 3월 26일(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추후 변동가능)
- 주의 : 새부산미술협회

■ 전시일정

- ▶ 전시장소: 금련산갤러리
- ▶ 전시기간
 - 1부_2024년4월30일(화) ~ 5월5일(일)
 - 2부_2024년5월7일(화) ~ 5월12일(일)
 - 3부_2024년5월14일(화) ~ 5월19일(일)
- ▶ 1차 선정작가 발표후 워크샵일정 : 2024년4월1일(일) 오후5시 (작가 개별 전시공간 추첨,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로 필히 참석요함)
- ▶ 전시도록 (1인 2페이지)

■ 특전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최우수청년작가 3명_상금 각 100만원(전시지원금포함)
- ▶ 우수청년작가 4명_상금 각 50만원(전시지원금포함)
- ▶ 청년작가 선정 초대전 개최 (선정 결과에 따라 개인전, 2인전, 3인전 형식 결정)
- 장소 :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초대(2025년1월중)
- 부평아트스페이스 초대(2024년7월중)

- 주관 :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대(주) 운영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KNN,

『생태와 삶, 인간생명에 대한 감수성에 눈뜨다』 2024년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개최요강

1. 주 회: 새부산미술협회(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 주 관: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운영위원회
3. 후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4. 행사 일정

일 정	내 용	장 소
5월 11일(토) 오후 2시	미술 캠프 일정 안내 및 입소식	부산보건대학교 지효관(과장)
5월 18일(토) ~ 19일(일)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1	부산보건대학교(구, 동주대학교)
5월 21일(화) ~ 26일(일)	창작 작품 전시회	금련산갤러리(금련산 자하철 역)
6월 4일(화) ~ 28일(금)	창작 작품 순회 전시회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구포)

5. 행사 장소: 부산보건대학교(구, 동주대학교), 금련산갤러리,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6. 참가 인원: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60명 내외 선발 예정
7. 참가 신청
 - 가.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 ~ 4월19일(금) 17시까지(접수일 준수)
 -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blaa01@hanmail.net 참가신청서 pdf파일 접수)
 - 나. 신청접수처: 부산미술협회 사무국(부산예술회관 4층, T. 051-645-3900)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8, 부산예술회관 4층 부산미술협회
 - 다. 제출 서류: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1부
 - 라. 참가비: 2만원(2024. 05. 03. 이후에는 반납이 불가함)
8. 주요 내용
 - 가. 전공별 작품 제작
 - 나. 전시 체험 (※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일정표는 추후 공지)
9. 참가 학생 선발 원칙
 - 가. 미술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학생부종합전형 보고서 작성 가능
 - 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10. 최종 참가자 발표: 2024년 4월 30일(일) 통보 예정 ※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및 단체 문자 통보
11. 운영위원회
 - 가. 운영위원장: 박재형
 - 나. 운영위원: 박기호, 권경철, 김도연, 김다람, 김문재, 김인영, 박우동, 박진희, 서용준, 신무경, 정규석, 원소라, 이원우, 이종원
12. 참가 신청 및 문의: 부산미술협회 사무국(T.645-3900, FAX:644-4183)
 - 홈페이지: <http://www.blaa.or.kr> E-mail: blaa01@hanmail.net
 - ※ 참가 신청 안내 및 『참가신청서』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내 참고 바람.

* 본 간행물은 2024년 부산광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